

“전쟁 중인 장수 안바뀐” CEO 리더십으로 불황 극복

증권사CEO 연임열차

미래에셋대우 등 8개사 주총 개최 실적 우수 5개사 CEO 연임 성공

올 코로나19 發 경영환경 악화 최고 실적보다 리스크 관리 관건

지난해 사상 최고실적 행진을 이어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올해 증권업계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이슈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대규모 투자은행(IB) 딜(Del)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호실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CEO들의 화두는 리스크 방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주주총회를 개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8개사다. 3월 중 가장 많은 증권사가 주총을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였다. 이날 5개 증권사 CEO가 연임을 확정했다.

우선 미래에셋대우는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조웅기 부회장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재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



박봉권 교보증권 신임 대표이사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43.7% 증가한 6638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영향이다. 미래에셋 창립 멤버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 미래에셋과 대우증권 통합 이후 조직 안정화와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영재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역시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무난히 연임을 확정했다. ‘IB 1세대’라는 명칭에 걸맞게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1조 3000억원 수준의 독보적인 실적을 기록하며 NH투자증권을 IPO 주관 1위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31.8% 증가한 4765억원을 기록했다.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이 취임했지만 정 사장은 ‘대체불가 CEO’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보증권은 박봉권 교보생명 자산운용총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김해준 대표 단독체제에서 각자 대

표체제로 전환했다. 또 김해준 대표는 6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증권업계 최장수 CEO’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순이익은 8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SK증권을 이끌어 온 김신 대표이사도 또다시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25.4% 증가한 314억원을 기록하면서 성과를 인정받은 덕분이다. 중소형 증권사에겐 불리한 경영환경이었음에도 독보적인 IB딜로 SK증권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도 연임에 성공했다. 최초 비(非)한양대 출신 CEO에 이어 최초 연임 기록까지 세웠다. 한양증권 순이익은 2018년 47억원에서 2019년 222억원으로 5배 가량 늘어나면서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증권업계 호황 속 호

실적을 달성하면서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증권사 CEO는 무난히 연임에 성공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올해 경영 환경은 먹구름이 많아 CEO의 역량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주가와 유가가 급락하면서 마진 콜(추가 증거금 납부요구) 등 헤지비용 부담이 확대됐다. A증권사의 경우 매월 약 1조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 만기 도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 영역을 확대해 증권사를 중심으로 손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B증권사는 7조원 수준의 해외 부동산 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신규 IB 딜도 ‘중단’ 수준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중단하거나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증권사도 다수로 알려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규 딜 심사를 보류하거나 승인한 건도 재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PF 대출도 중단하면서 그동안 쏠쏠하게 벌었던 수수료 수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CEO의 경영 과제는 ‘리스크 관리’다.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그동안 키워온 사업 부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장기재임 CEO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재임 CEO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수한 경영역량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비규제+역세권역 아파트 프리미엄 ‘억’

미래가치 확실한 지역 수요 집중 송도 SK뷰 센트럴 1.9억 시세차익 강원 속초, 경기 시흥 거래량 증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증가 등 세금 부담을 피해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 규제가 덜해 자금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 투자처로 부상해왔다.

25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철도 교통 호재를 갖춘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내에 철도가 개통되면 단순히 교통망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 함께 이뤄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규제 지역이자 GTX-B노선과 인천발 KTX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분양한 ‘인천 송도 SK뷰 센트럴’은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78㎡의 분양가가 4억7947만원이었으나 지난 2월 분양권이 6억7283만원(31층)에 팔려 1억9336만원의 시세차익을 나타냈다.

교통 호재를 갖춘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예정된 강원도 속초시와 신안산선·월곶~판교선 호재가 있는 경기도 시흥시 등의 아파트 거래량이 대책 전보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11월14일~12월15일)과 직후 1개월(12월17일~1월16일)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을 살펴보면, 강원도 속초시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1개월 간 123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대책 발표 직후 1개월 동안에는 208건이 거래돼 69.1% 증가했다. 시흥시도 같은 기간 653건에서 875건으로 거래량이 33.99% 상승했다.

반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1개월 간 590건이 거래됐으나 직후 1개월 동안 162건만 거래돼 72.54% 하락했다. 세종시도 1905건에서 1307건으로 31.39% 감소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주택 규제에 의해 청약 및 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교통호재를 갖춰 미래가치가 확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가 몰리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는 투자 수요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비규제 지역에서 선보이는 새 아파트 단지는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시흥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잇따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 일원에서 선보인 ‘속초2차 아이파크’의 정당계약을 26일까지 진행한다. 전용면적 79~156㎡, 총 578가구 규모다.

영무건설은 경기도 시흥장현지구 B-9블록에 들어서는 ‘시흥장현 영무에다움’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47가구 규모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공동2블록에 ‘호반씨더 퍼스트 시흥’을 4월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오는 4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LH, 임금 반납으로 코로나 극복 동참

4개월 간 최대 30% 반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반납에 동참한다.

LH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4개월간 상임이사 이상 임원 8명은 월 급여의 30%를 분사 및 수도권 본부장 7명은 월 급여의 20%를 반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금 반납을 통해 마련된 재원 약 1억2100만원은 주거복지재단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생활지원비용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LH

LH는 이번 임금 반납에 앞서 지난 11일 구호 성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직원들이 조성한 ‘나눔펀드’를 이용해 코로나19 관련 사회 공헌사업에 67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정연우 기자

현대건설, 부산 범천 1-1 최고급 시공 제안

바닥두께 더 늘려 층간소음 최소화

현대건설은 부산 진구 범천1-1구역에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진구 범일로 192번길 26 일원 2만 766㎡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8개동, 총 1511가구(아파트 1323가구·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범천1-1구역은 더블역세권과 숲세권, 물세권과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를 모두 갖춘 명품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찰에서 현대건설의 제안이 두드러진 점은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 및 외관 조정 디자인이다.

현대건설 미래기술연구소와 주택설계팀은 범천1-1구역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30mm 증가시킨 240mm로 바닥 슬래브 두께를 보강 설계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범천1-1구역 사업의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골든타임분양제’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골든타임분양제’는 강남 주요 사업장에 제안됐던 조건으로, 조합이 원하는 시기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건이다. /정연우 기자